

2017 강정 대구현대미술제



7월~8월 | 강정보 디아크광장

flower
대구의 뿌리 달성 꽃피다



달성문화재단 계간지

꽃밭에서

2017 _ 겨울호 WI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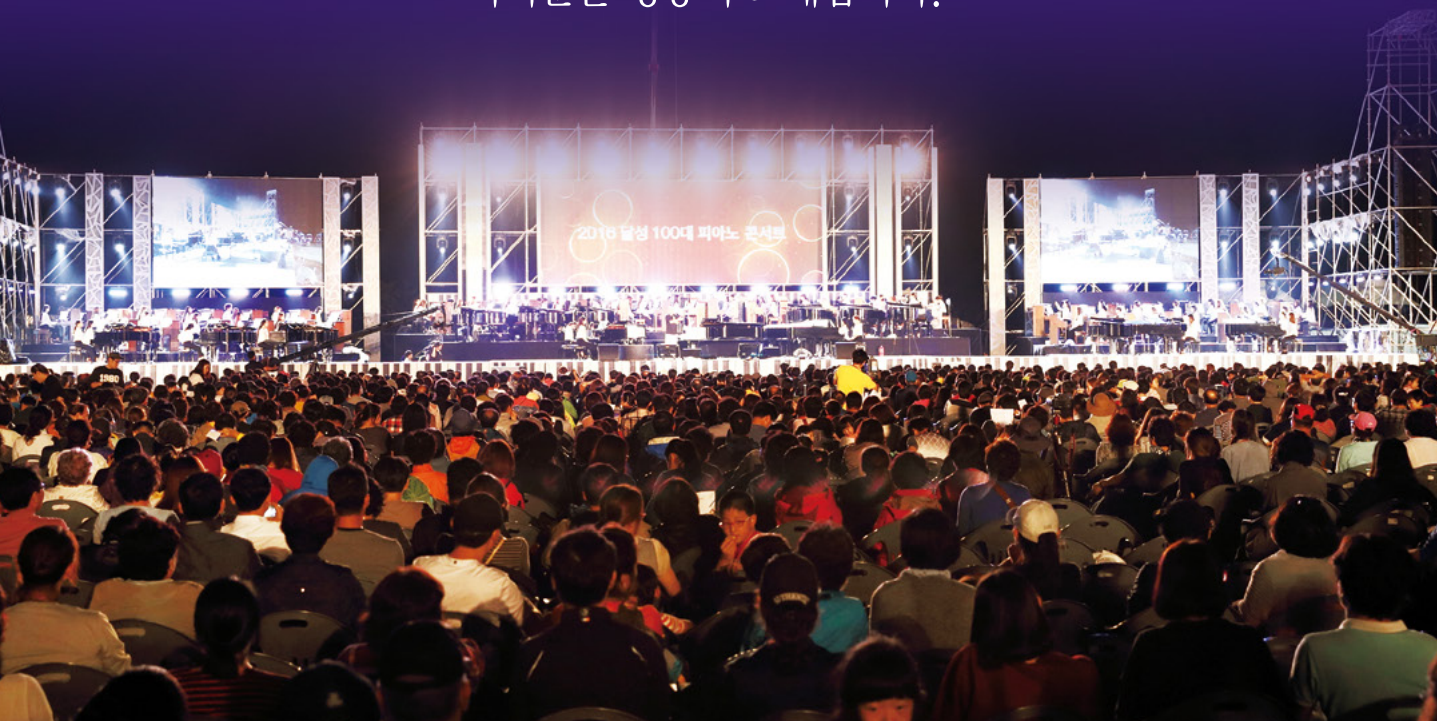
달성문화재단

2017 달성 100대 피아노

한국의 대표 블록버스터 피아노 축제

9월 30일 |토| ~ 10월 1일 |일|
오후 7:00 사문진 나루터

“100대 피아노가 펼치는 그 장엄한 선율 속으로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

•

가창 고인돌



달성군 가창면 냉천리의 지석묘군은 2006년 대구시 기념물 제14호로 지정되었다. 지석묘는 청동기시대 대표적인 무덤으로 고인돌이라 부르기도 한다. 지석묘는 모두 8기로 과거 신천유역에는 많은 지석묘가 분포했으나 급격한 도시 팽창과 경지정리로 인해 대부분 훼손되었다. 상동 고인돌 및 마을유적과 파동 바위그늘유적 등과 연계하여 신천유역에 영위되던 청동기시대 사회상을 파악할 수 있는 학술적 자료로 가치가 크다.

참조 : 문화재청

•

•

문화의 결실을 꿈꾸는 시간들

재단에서 문화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공연이나 문화행사 중 늘 관객들의 반응을 보고 듣게 되기 마련이다. 아동극은 어린이가 느끼는 감정과 어른들의 대화, 공연과 전시 사업은 일상 속에서 말하지 않던 다양한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객들의 반응과 속삭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다 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미약하나마 지역사회의 문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라는 작은 기대감이 들기도 한다.

달성군은 가장 안전한 도시 1위, 행자부가 실시한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5년 연속으로 최우수단체로 선정, 또한 대구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거듭나는 등 나무가 꽃을 피운 뒤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달성은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결실을 거두고 있다. 그 결실은 22만을 넘어 23만으로 인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에서도 엿볼 수 있으며 인구가 늘어난 만큼 달성군은 문화 인프라 구축과 예술적 욕구를 해소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이에 달성문화재단은 연간사업으로 달성 100대 피아노, 강정 대구현대미술제, 달성음악회, 성악중창페스티벌, 계간지 발간, 달성의 전설 조형물 설치사업 외에 보조사업으로 학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인 도동서원의 하루, 참꽃문화제, 전국사진공모전 등 매 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여 보다 참신하고 흥미로운 문화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달성문화재단은 출범 5주년을 넘어 바야흐로 역사와 문화의 화합을 이루어내기 위한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

고 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하는 비슬산 참꽃문화제의 경우 매년 지역 및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시민들에게 참꽃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클래식에서 대중가요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공연 프로그램을 마련해 아름다운 참꽃과 어우러진 봄날의 즐거운 기억을 선사한다. 한여름, 미술사적 의의가 서려있는 강정에서 진행되는 강정 대구현대미술제는 평소 접하기 힘든 현대미술작품을 야외에 설치해 시민들에게 여가시간 속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더해 야외설치미술이라는 독창적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달성군이 미술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 산책하기 좋은 계절에 열리는 달성 100대 피아노는 해를 거듭할수록 그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매년 관람객 수를 갱신하며 흥행에 성공 중인 달성 100대 피아노는 달성의 공연사업 중 가장 주목받는 볼록버스터 공연으로 평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세계적인 음악가를 초청해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무대로 매년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화사업이 이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해 선뜻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대구의 뿌리 달성군에는 수많은 문화 콘텐츠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이 소재들을 그냥 내버려 둘지, 아니면 군민을 위한 문화기획으로 손질하고 다듬을지에 대한 대답은 '그래도 역시 내버려 두기엔 아까운 이야기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달성문화재단의 지난 5년은 그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가꾸는 시간들이었다. 2017 정유년 한해도 달성문화재단은 묵묵히 씨를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며 정성스레 달성의 문화를 가꾸게 될 것이다. 이 작지만 꾸준한 노력이 달성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문화적 기폭제가 되길 소망해 본다.

달성문화재단 문화사업팀장 김성수

CONTENTS

2017 WINTER Vol. 03

07 Column

일상의 성소(聖所)를 위하여
_ 시인 이하석

08 Special Flower_ 돌아보기 I

돌아보는 전국유일 2016 성악중창 페스티벌
SE7'EN ENSEMBLE

저음이 전하는 감동_ 바리톤 고성현

14 Special Flower_ 돌아보기 II

내 마음의 주인을 부르는 도동서원
_ 대구의 서원이야기 '빌딩숲 사이길 따라' 저자
밝은사람들 기획제작실장 이현경

선비정신이 살아있는 곳 _ 도동서원의 하루

도동서원 사람들 _ 차종손 김백용, 대구 문화관광해설사 김경화

22 about Dalseong_ 역사

사육신의 충절을 기리는 육신사 그리고 박팽년

24 about Dalseong_ 건축

조선시대의 정취가 남아있는 조길방가옥

26 about Dalseong_ 상징

불사리(佛舍利)를 봉안한 용연사 금강계단

Page22

Page26





일상의 성소(聖所)를 위하여

시인 이하석

얼마 전 열렸던 화가 김미련의 전시회가 생각한다. 'Moving Scape'전. '장소와 공간의 흔적을 기록하는 스캐닝 작업'이라 했다. 장소-공간의 역사와 의미를 새로운 매체들로 채집하고 기록하여 보여주는 게 인상적이었다. 자신이 몸담은 공간에서 만나는 자연과 일상의 사물들이 '장소'에 대한 기억, '시간'에 대한 기록의 방식으로 드러났다. 사소한 일상의 것들이 뜻밖에도 나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시키는 전시였다. 이를 두고 한 비평가는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존재 증명'이라 말하기도 했다. 사소하고 관심 밖에 버려진 풍경과 사물들이 '그 풍경과 사물들과 함께 있는' 한 작가의 시각을 통해 사뭇 성스러운 존재로 전환된 예다.

그 작업이 꽤 인상적이어설까, 나도 주변의 사물과 풍경들을 새삼스럽게 눈여겨보려는 의욕을 갖는다. 사는 곳이 가장 지역이라, 나의 산책은 신전의 상류 쪽과 산기슭으로 자주 이어진다. 이 산책로의 사물들과 동·식물들, 사람들의 모습들이 새삼 '스캐닝'되면서 새롭게 의미 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 사소하다고 여기거나, 관심 밖에 버려져 있다고 느끼는 것들이 뜻밖에도 아주 또렷한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특별하게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다. 그런 시각을 가지게 되면서 나의 산책로는 내게 있어서 하나의 성지순례 코스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흥미롭다. 내가 살고 있는 달성군 지역도 그런 눈으로 새롭게 보려 애쓴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져 보일 것이다. 최근 자주 눈에 띄는 벽화에 대한 관심도 그 중의 하나다. 마비정 마을의 벽화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최근 화원의 전통시장과 동곡 할매 칼국수 식당 거리에 벽화를 조성하여 지역의 상권과 예술과의 만남을 시도하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빈면 낙동 마을에도 빈집을 창작공간으로 활용한 전시회를 지난 연말에 선보였다. 달성군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마련한 이 전시는 '작은 변화, 작은 전시회'라는 이름으로 열렸는데, 지역의 주민과 예술가들이 공동으로 완성한 작품들이 선보였다.

달성군의 이러한 시도는 나름 의미를 가질만하다. 명소라는 것이 꼭 역사적으로 두드러지는 곳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이고 사소한 곳에도 있을 수 있다는 의식에서 이런 발상이 출발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생명이 존재하고,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떤 곳이든 명소가 되고 성소가 된다고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사는 공간과 장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자부심이라 할 수 있다.

벽화의 역사는 길다.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들은 동굴의 벽이나 천장 따위에 동물 그림을 그렸다. 자신이 사는 곳을 성소로 바꾸는 행위였다. 달성군이 추진하는 벽화도 그런 의식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보고 싶다. 기실 마을이나 거리의 벽화 그리기는 이제 전국적으로 붐이 일고 있는 현상이다. 주로 관광적 희망에서 수용되기도 한다. 이제부터는 그런 상업성에만 치우치지 말고, 한 공간-장소의 보다 확실한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데서 벽화가 출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진다. 즉흥적이고 일회적이 아닌, 계획적이고 영구적인 보존의식이 받쳐주는 가운데, 그야말로 재능 있는 작가의 예술적 시각에서 고려되고 수용되며 조성될 때 벽화가 있는 마을은 절로 새로운 명소가 되고 성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사는 동네가 그런 시각으로 달리 불만한 곳이 되기를, 진정한 성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28 about Dalseong_ 피플

잔잔한 화음에 띄우는 따뜻한 위로_ 달성군립합창단 지휘자 윤동찬

30 about Dalseong_ 문학

우리 문학의 뿌리, 아름다운 시조 운율_ 시조시인 박기섭

32 about Dalseong_ 미술

그 '어른'들의 시간과 흔적을..._ 미술작가 박중식

34 about Dalseong_ 소식

눈 깜빡거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록
_ 달성군 전국사진공모전 심사위원장 배원태

36 about Dalseong_ 달성인 세계속으로 I

바다와 관광의 도시, 케언즈를 가다

40 about Dalseong_ 달성인 세계속으로 II

교토예술센터 _ 교토의 문화예술을 만나다

44 about Dalseong_ 소리

달성하빈들소리_ 작곡가 유대만

46 about Dalseong_ 인문학 총서 리뷰

강정 대구현대미술제_ 대구문화예술회관 학예연구사 박민영
현대미술연구소 대표 김옥렬
달성의 먹거리_ 푸드스토리텔러 이춘호

48 about Dalseong_ 그곳, 거기

산골마을에 앉은 담아한 색감, 소박한 동심
_ 마비정 벽화마을

달성문화재단 DALSEONG CULTURAL FOUNDATION

발행인 | 김문오 달성문화재단 이사장
편집인 | 김채한
기획/편집 | 김성수, 곽원영, 김상욱, 박현주, 이나영, 장인규
발행월 | 2017년 1월
발행처 | 달성문화재단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2길 188
전화 | 053/715-1273
팩스 | 053/715-1289
홈페이지 | www.dsart.or.kr
디자인/제작 | 밝은사람들 053/660-6600

ISSN 2508-3740
2017년 VOL.3 비매품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은 서면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돌아보는 전국유일 2016 성악중창 페스티벌

SE⁷⁺EN
ENSEMBLE

SE⁷⁺EN
ENSEMBLE



달성문화재단은 지난 12월 27일(화) 오후 7시 30분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전국유일 2016 성악중창 페스티벌>을 'SE⁷⁺EN ENSEMBLE'이라는 부제로 개최했다. 2016 성악중창 페스티벌은 대구지역 성악중창단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성악중창단을 섭외하여 보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음악을 선보여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국내 대표 공연장 중 하나인 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이번 성악중창페스티벌은 대구국제오페라 축제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이 곳의 열기를 한층 더 돋우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추운 겨울 따스한 7색의 하모니

이번 성악중창 페스티벌은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매력적인 퍼포먼스와 신음악의 선두주자 '아르스노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상남자들 '열인', 뮤지컬과 팝페라 중심의 앙상블 '인칸토', 예술감독 최훈락(피아니스트)을 비롯해 독일유학파로 구성된 'M.S.G(Music in South Korea & Germany)' 4팀과 함께 현재 JTBC에서 방영 중인 팬텀싱어에 출연하여 실력을 인정받은 베이스 손태진을 주축으로 구성된 '유엔젤보이스', 세계 각국에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정상 바리톤 고성현, 우주호, 제상철, 한명원으로 구성된 'The tones 3'가 저음의 감동을 들려주었다. 특별출연에는 클래식과 뮤지컬을 넘나들며 『나는가수다2』, 『복면가왕』 등에 출연하며 대중성을 겸비한 팝페라가수 '카이'가 출연했다.

특히 이번 공연은 음악극 형식으로 제작돼 관람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첫 번째 테마는 사랑, 두 번째 테마는 여행을 주제로 제작하여 성악중창단들의 연기와 함께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다. 또한 공연의 반주는 수년간 대구국제오페라축제를 전담해온 DIOO오케스트라가 참여하며 이동신(현 경북도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깊은 음악과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었다. 연출가 유철우의 섬세한 연출과 오케스트라의 화려한 음악이 한 편의 뮤지컬공연을 본 듯한 느낌을 선사했다.





한해 마지막 음악종합선물세트

SE7⁺EN
ENSEMBLE

본 공연은 이번 무대의 사회를 맡은 소프라노 신델라의 노래로 화려한 문을 열었다. 각 중창단들은 한국가곡, 가요, 뮤지컬, 오페라 등 장르를 넘나들며 성악중창만의 웅장하고 화려함으로 알찬 무대를 표현했다. 특히 음악극은 사랑과 여행을 주제로 구성해, 성악중창단들의 연기와 오케스트라 반주를 더하여 중창의 매력을 더욱 극대화 시켰다.

1st with Love Story

1부 러브스토리 공연에서는 아르스노바와 열인, M.S.G, 인간토, 세븐맨양상블, 유엔젤보이스, 카이가 출연하여 뜨거운 무대를 선사했다. 첫 무대는 아르스노바가 김호근의 '첫사랑'으로 그 막을 열었고, 열인은 '소녀시대 메들리'로 대중가요를 중창으로 표현해 관객과의 공감대를 다졌다. 성악가와 피아니스트로 구성된 그룹 M.S.G는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West Side Story)의 '투나잇(Tonight)'을 들려주었고, 신진 성악가들로 구성된 인간토는 오페라 라 트라비아(La Traviata)의 '브린디시(Brindisi)'를 선보여 그 열띤 기량을 맘껏 펼쳤다. 대구지역 성악중창단의 남자단원들로 구성된 세븐맨양상블은 뮤지컬 남태평양 중 '여자보다 귀한 것은 없네'를 부르며 익살스러운 가사와 율동으로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미남 실력파 그룹 '유엔젤보이스'의 무대도 단연 인상 깊었다. 유엔젤보이스는 '카루소(Caruso)'와 영화 태극기를 휘날리며의 삽입곡 '드림스(Dreams)' 그리고 영화 시스터 액트(Sister Act)의 '오! 해피 데이(Oh! Happy Day)'를 열창하여 여성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1부의 마지막은 특별출연으로 등장한 팡페라가수 '카이'가 장식했다. 이미 '2016 달성 100대 피아노'에서 그 기량을 펼친 바 있는 카이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매료된 관객들은 열광적인 함성과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2nd with Overseas Trip

한껏 달아오른 열기는 2부에서도 식을 줄 몰랐다. 여행을 컨셉으로 잡은 2부의 첫 무대 역시 아르스노바가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그 막을 열었다. 뒤이어 M.S.G와 열인, 인간토의 무대가 이어지며 마치 설레는 여행을 떠나는 듯한 무대를 펼쳐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특히 대구지역 성악중창단들로 구성된 세븐양상블은 오페레타 박쥐 중 샴페인송(Champagne song)을 합창하며 아름다운 하모니와 함께 화려한 무대를 보여주었다. 이어 최정상 바리톤 고성현, 우주호, 제상철, 한명원으로 구성된 The tones 3는 남성다운 보이스로 홀을 가득 채워 풍성한 성량으로 감동 깊은 선율을 선사했다. 특히 세계적인 바리톤 고성현은 '시간에 기대어'를 귀품 있는 음색과 풍성한 성량으로 표현해 관람객들의 문화수준을 충족시켰다. 마지막 무대는 세븐양상블이 LED촛불을 들고 올라와 우리나라에서는 석별의 정으로 많이 알려진 스코틀랜드 가곡 '올드 랭 사인'을 관객들과 함께 부르며 2016 성악중창페스티벌은 막을 내렸다.



세븐 플러스 앙상블과 함께한 '아듀! 2016'

2012년부터 시작된 성악중창과 함께하는 송년의 밤은 2016년에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매년 12월의 끝자락이 되면 성악중창단이 펼치는 아름다운 밤이 기다리고 있다.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 새해에 대한 희망의 기로에 선 이들의 이야기들이 한데 모인 성악중창 페스티벌은 단순한 음악 공연이 아닌 시민과 함께하는 연말의 음악 축제이다. 앙상블의 뜻은 프랑스어로 '함께, 조화'라는 뜻의 음악 용어이다. 본 공연으로 대구광역시와 달성군의 화합에 발맞춰 대구시민들과 달성군민들이 함께 소통하고자 한 의미가 공연 타이틀인 '앙상블'에 녹아있다. 풍성하고 다양한 장르의 곡 구성과 성악중창단의 열정 그리고 DIOO오케스트라의 반주로 성악중창의 매력을 극대화한 이번 공연은 관객들의 아낌없는 찬사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2017년 12월, 다시 찾아올 '성악중창 페스티벌'을 고대하며, '2016 성악중창 페스티벌'을 통해 2017년 정유년을 맞이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풍요롭게 채워졌길 바란다.  기획 · 편집부

저음이 전하는 감동

바리톤 고성현

‘2016 성악중창 페스티벌 - 세븐플러스 앙상블’의 하모니가
대구오페라하우스를 가득 메웠다. 이번 공연에 출연한 바리톤 고성현 교수를 만나
전국 유일 성악중창 공연의 뒷이야기를 나눴다.

바리톤 고성현

고성현 교수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베르디 국립음악원 Lascala 오페라 아카데미를 졸업한 세계적인 바리토너다. 그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오페라극장 국제 콩쿠르 1위 등 다수의 국제 콩쿠르에 입상한 바 있다. 또한 베를린 필하모니 초청으로 베르디 서거 100주년 기념음악회 등 수많은 콘서트에 출연했고, 현재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국내외 유명 오페라 주역을 맡고 있다.

그는 ‘2016 성악중창 페스티벌’에 참여한 ‘The tones 3’의 멤버이기도 하다. 고 교수는 “이 시대 최고의 바리톤으로 구성된 ‘The tones 3’는 클래식 성악 장르의 문턱을 낮추며 대중에게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기 위해 만들어진 그룹입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저음 가

수들이 꾸미는 최상의 무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라며 그룹 소개와 공연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말했다.

시간에 기대어

이날 The tones 3는 ‘Toreador song(오페라 카르멘 中)’과 ‘Largo al factotum della citta(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中)’를 들려주며 남성 중창의 풍성한 성량을 자랑했다. 두 곡에 앞서 선보인 곡은 고 교수의 크로스오버 음악인 ‘시간에 기대어’였다. 최근 한 오디션 프로그램의 도전자가 이 곡을 불러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당달아 포털 검색어 순위 노래 제목이 상위에 오르기도 했다. 고 교수는 “시간에 기대어’라는 곡은 연습이 없는 우리의 현실, 뒤돌아보면 어찌하면 후회밖에 없는 나의 삶, 그러나 우리가 변치 말



아야 할 것은 삶에 대한 사랑, 진실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라면서 자신이 걸어왔던 노래 인생 길을 돌아보며 ‘내가 왜 노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 빠졌을 때 이 곡을 처음 만났다고 했다. 그는 여러 방송과 콘서트 무대에서 ‘시간에 기대어’를 불러왔다. 이번 공연에서도 그의 자아에 빚든 섬세한 감정과 바리톤의 저음, 처연한 멜로디가 뒤섞여 관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앙상블의 완성

‘대구광역시와 대구의 뿌리 달성군이 함께’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 이번 공연 제목에 ‘앙상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고 교수는 성악중창 페스티벌 공연

에 대해 “문화 공연은 전문인들만의 축제가 아니지요. 대중이 원하고, 또한 그들에게 귀 기울여 만든 콘텐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달성의 성악중창 페스티벌은 ‘전문성과 대중성 앙상블의 완성’이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극찬했다. 또한 그는 달성 문화에 대한 바람과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밝히며 공연을 찾은 관객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을 달성의 음악과 문화로 치유하며 서로를 보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풍요로운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세상을 희망해 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말로 된 아름다운 가사와 시로 만든 노래를 부르며 많은 이에게 위로의 음악을 전할 계획입니다. 공연에 찾아주시는 달성군민을 비롯한 대구시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또 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획·편집부

내 마음의 주인을 부르는 도동 서원 (道東書院)

이현경

대구의 서원이야기 '빌딩숲 사이길 따라' 저자
밝은사람들 기획제작실장

도동서원. 한훤당(寒喧堂) 김굉필(金宏弼 · 1454~1504)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도(道)가 동쪽으로 왔다'는 이름의 도동서원은 처음에 현풍 비슬산 동쪽 기슭에 세워져 쌍계서원(雙溪書院)이라 불렀다. 창건 5년 뒤인 1573년(선조6)에 이 이름으로 사액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다. 그 뒤 1604년(선조37)에 김굉필의 외증손인 한강 정구(鄭逖)가 지방의 사람들과 더불어 지금의 자리에 다시 지어 보로동서원(浦老洞書院)이라 했다. 이후 1607년(선조40)에 '도동서원'으로 사액을 받았다. 조선 후기 600여 서원 가운데 47곳만 남긴 대원군의 서원철폐령도 피해온 도동서원은 중정당, 사당, 이를 둘러싼 담장이 보물 제350호다. 그리고 신도비와 은행나무 등을 포함한 서원 전역이 사적 제488호로 지정되었다.

이곳 도동서원에 모셔진 김굉필은 널리 알려진 대로 조선 전기의 문인이자 교육자이며 성리학자다. 그는 스무살 때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의 문하에 들어가서 소학(小學)을 배웠다. 그가 지은 '독소학(讀小學)'이라는 시에 '소학 책 속에서 어제까지의 잘못을 깨달았네(小學書中悟昨非)'라는 구절이 있는 것을 보고 스승 점필재는 '이 구절은 성인이 될 수 있는 근거(根基)'라며 칭송했다고 한다. 김굉필은 오로지 소학만 공부했고, 소학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했다. 그래서 스스로 '소학동자'라 했다. 소학에는 평소 살아가면서 지키고 실천해야 할 가르침인 부모를 사랑하고(愛親), 어른을 공경하고(敬長), 임금에 충성하고(忠君), 스승을 높이고(隆師), 벗과 친하는(親友) 길 등이 담겨 있다. 그래서 그는 새벽 첫닭이 울면 일어나 어버이 계신 곳에 문안 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한다. 저녁 잠자리 들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했다. 그러니 평소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의 마음이 어땠을지 엿보인다. '효(孝)가 백행의 근본'임을 적극 실천한 것이다.

김굉필은 늘 연밥 엮은 갓끈을 단 초립을 쓰고 지냈다. 낮 밤 할 것 없이 항상 방안에 앉아 벽을 마주하고 좌

선하는 수도승처럼 학문을 닦았다. 가족들은 밤이 깊어도 가끔씩 연밥 갓끈이 책상에 닿아 달그락 거리는 소리에 아직도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것으로 알아차렸다고 한다. 이토록 깊은 학문으로 조선유학의 전통을 계승한 김굉필을 두고 퇴계는 '우리나라 도학(道學)의 대종(大宗)'이라 했다.

도동서원 앞에는 정구가 손수 심었다는 400년 넘은 은행나무가 무성한 잎과 세찬 기운으로 장엄하게 서원을 지키고 있다. 서원의 외삼문(外三門)인 수월루(水月樓)를 들어서면, 가파른 돌계단 위에 좁고 낮은 환주문(喚主門)이 기다린다. 환주(喚主)는 '주인을 부른다'는 뜻으로 이 문을 들어서기 전 에 '주인은 깨어있는가'하며 스스로를 냉엄하게 살펴야 한다. 그래서 이 환주문을 '마음의 주인을 부르는 문'이라고 한다. 배움의 터 강학공간에 들어서는 옛 선비들은 이렇듯 마음가짐을 정갈하게 추스려 스스로를 낮춰 고개를 숙여야만 이 낮은 문이 받아들여주었다. 게다가 이 환주문을 지나 중정당으로 가는 디딤 돌판 끝엔 사나운 표정의 돌거북이 낮게 엮드린 채 노려보고 있다. 신성한 배움의 공간이자 귀하고 위대한 분을 모시고 있는 곳에 왔으니 몸과 마음가짐이 두루 단정하기를 살피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곳 도동서원에 모시고 있는 김굉필은 조선5현(朝鮮五賢 : 김

굉필 · 정여창 · 조광조 · 이언적 · 이황) 가운데서도 가장 웃어른(首賢 · 수현)으로 받드는 분이기 때문이리라. 도동서원은 이처럼 항상 누구나 바른 마음 맑은 정신으로 경내에 들어서야 한다.

전통서원의 대표적 기능은 강학(講學)과 제향(祭享)이다. 즉 '공부'하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그런데 지금은 강학기능은 거의 없어지고 제향기능만 이어오고 있다. 여러 제향이 있지만 요즘은 서원마다 봄가을로 향사(享祀)만 올리고 있을 정도다. 도동서원 향사는 김굉필의 깊은 학문과 유덕을 기리고 추모하는 의식이다. 그래서 봄가을로 의관을 갖춘 제관들이 경향각지에서 모여든다. 그런데 그동안 도동서원도 이미 다른 서원들처럼 강학기능은 잊혀져왔다. 대신 최근 이곳 도동서원에서는 향교 · 서원사업의 일환인 '도동서원의 하루'라는 프로그램이 2013년부터 진행 중에 있다. 이 프로그램은 도동에서 소학을 비롯하여 옛 선비의 삶을 체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수업으로 구성돼 과거와는 다른 또다른 형태의 가르침을 제공한다. 이제 도동서원은 전통서원의 문화를 시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 그 가치를 빛내고, 도동서원에 담긴 올곧은 정신과 다양한 이야기를 문화콘텐츠로 되살려 역사와 전통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해가고 있다.



선비정신이 살아있는 곳

도동서원의 하루



한국의 서원은 수려한 경관 속에 자리 잡아 천인합일의 성리철학을 체득하고 실현하는 작은 우주다. 그리고 그곳에서 같은 목적을 가진 식자들이 가치관을 향유하며 교육하고 토론한 점에서 한층 그 가치가 돋보인다. 특히 서원의 진면목은 자신들이 존경하고 멘토로 삼는 스승의 연고지에 후학과 문인들이 서원을 건립하고, 제향과 함께 그 정신을 이어갔던 점에 있었다. 서원은 조선 선비들의 교육과 강학, 그리고 활발한 문화활동과 교류의 공간이다.

도동서원은 동방오현의 수현으로 문묘에 종사된 한훤당 김굉필 선생을 배향하는 서원이다. 이황은 김굉필을 '동방도학지중'이라 칭송했으며 '도동(道東)'으로 사액된 것도 공자의 도가 동쪽으로 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도동서원은 고종 2년(1865) 대원군의 서원철폐 때에도 철폐되지 않은 전국 47개 서원 중 하나이다. 강당·사당과 이에 딸린 담장은 보물 제35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원 전면에 위치한 신도비, 은행나무 등을 포함한 서원 전역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고 있다.

달성문화재단은 도동서원의 가치와 유교 사상을 조명하고 도동서원의 위상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2016 '도동서원, 내 마음의 주인을 부른다'를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시행했다.



2016년 들어 세 번째로 시행한 이 사업은 문화재청의 '2016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활용사업' 공모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도동서원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와 의미들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창조하기 위하여 구성된 체험 프로그램 '도동서원의 하루'는 청소년과 일반인이 사전 단체 예약을 통해 참여가 가능했고 2016년에는 총 30회의 프로그램으로 1,700여 명이 참여했다.

달성문화재단은 2017년 '문화재청 향교·서원 활용사업'에 또 다시 선정되어 「선비, 그 깊이와 너비 '도동서원」으로 총 사업비 83,600,000원을 확보했다. '도동서원의 하루', '장수비법, 건강을 부르는 도동서원', '한훤당 고택 데이트 '화음'', '한훤당 고택에서 만나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앞으로 문화재 활용사업을 통해 도동서원을 근거로 서원문화재 본래의 가치와 진정성을 계승, 이를 현대적으로 창조하는 방향으로 활용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여 다양한 문화유산 활동의 장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전통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기획 기획·편집부

2016 • • •

‘도동서원의 하루’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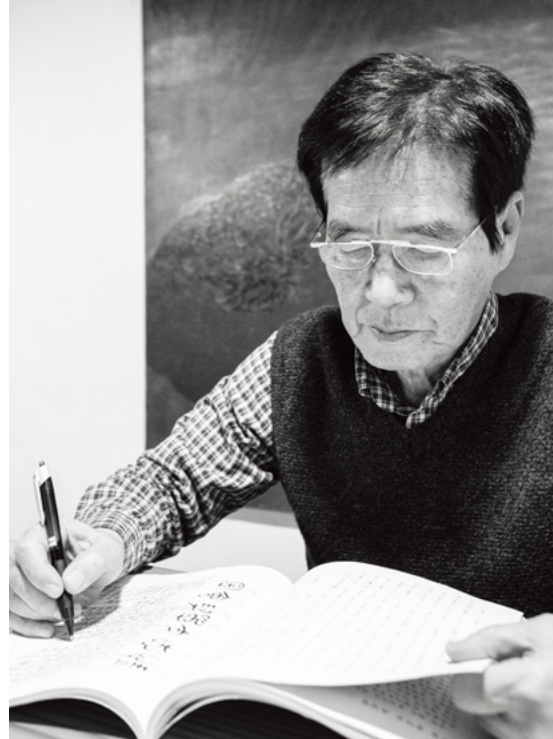
도동서원 사람들

도동서원이 삶의 일부가 된 사람들이 있다.

한훤당 김굉필 20대손 김백용 차종손과

대구의 올바른 역사와 문화를 전하는

김경화 문화관광해설사를 만났다.



세대를 잇는 찬란한 공간에서_

김백용 차종손(한훤당 김굉필 20대손)

도동서원 인근 한훤당 고택에 살고 있는 김백용 차종손. 그는 젊었을 때 교직에서 국어를 가르쳤다. 그는 현재 도동서원과 지역 향교에서 인성교육 등의 강의를 하고 있다. “김 ‘병’자 ‘의’자 쓰시는 제 아버지는 올해 97세입니다. 편의상 저에게 차종손이라는 말을 붙여 쓰게 됐지요. 저는 여러 사람들에게 한훤당 할아버지가 늘 가까이했던 소학(小學)을 알리고 있습니다. 소학은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동과 언어가 담긴 책입니다.”

김 씨는 도동서원을 지켜오며 그가 기억하는 일들을 이야기했다. 은행나무. 10여 년 전 도동서원 앞에 있는 은행나무가 거의 죽게 될 위기를 맞았다고 한다. 서원 주변의 가시나무 제거를 위해 사용된 제초제가 화근이었다. 전국의 관련 학자들의 연구와 진단 끝에 나무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 번은 중국에서 온 학자들을 맞이한 적이 있다. 환주문(喚主門) 앞에서 “이리 오너라!”를 외치는 한 학자에게 ‘마음의 주인을 부르는 문’이라는 의미를 알리고, 정갈하고 경건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 등의 올바른 인식을 조심스럽게 전하기도 했다.

주말이 되면 그의 아버지와 아들, 손주들까지 4대가 모여 식사를 하거나 손주들과 여행을 떠나기도 한다. 김 씨는 나라를 사랑하고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충(忠)의 개념을 배워 익히고, 예의범절부터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인성교육을 할 때도 이론보다는 꽃어앉아 보라고 하거나 한복을 입어볼 것을 권합니다. 그저 할아버지의 삶을 한 번 느껴보라고 말하지요. 2017년 도동서원

주변에 더 많은 시설을 갖춰가며, 누구나 이곳에서 옛 조상의 얼을 느끼고 체득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한훤당 고택에서도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이렇게 늘 개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역량은 작지만, 이 조그마한 것을 나눌수록 우리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웃음)”



도동의 역사에 귀 기울이면_

김경화 대구 문화관광해설사

김경화 문화관광해설사. 2003년부터 대구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곳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고 있다. “대구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관광으로는 외면받던 도시였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관광객이 대구를 찾고 있지요. 특히 달성을 찾는

이들에게 하루를 머물며 쉬어 갈 수 있는 도동서원에 가볼 것을 권합니다.” 김 해설사는 도동서원 주변을 에워싼 수려한 풍경에 대해 묘사하기도 했다. “달성군 구지면 도동리, 엄마의 품과 같은 대니산과 잔잔히 흐르는 서원 앞 낙동강 풍광이 어우러져 눈앞에 한 폭의 선유도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안내하는 도동서원 관광에 대해 들어봤다. 김 해설사는 대니산 다람재를 지나 도동서원으로 가는 길을 추천했다. “다람재 정상에 올라서면 낙동강을 휘감아 끼고 있는 도동서원과 낙동강 너머 고령군 개진면 들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또한 그곳에는 한훤당 김굉필 선생의 한시 ‘노방송’과 번역문을 새겨둔 시비와도 마주할 수 있지요.” 다람재 정상에서 다시 경사진 길을 따라 내려오면 도동서원이 기다린다.

김 해설사는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 설명과 함께 도동서원에 대한 바람을 전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동의 역사를 어렵듯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화관광해설을 통해 서원과 한훤당 선생의 선비정신을 설명 듣고 선, 비로소 대구와 달성이 달리 보인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도동서원에서 겸손과 절제의 선비정신 그리고 배려와 존중의 미덕을 잘 배우고 익혀나가길 희망합니다.”

기획 · 편집부

사육신의 충절을 기리는

육신사 그리고 박팽년

달성군 하빈면 육신사길 64에 있는 육신사(六臣祠). 조선 세조 때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목숨을 잃은 사육신(死六臣) 박팽년, 성삼문, 이개, 유성원, 하위지, 유응부 등의 위패를 봉안한 사당이다. 조선시대 형법 중 역모죄에 해당하는 형벌은 삼족을 멸하는 것이었다. 사육신을 비롯해 가문의 남자들은 모두 참형에 처해졌고, 여자들은 관비가 되어야 했다. 박팽년 가문은 사육신 중 유일하게 살아남아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다. 바로 이 가문의 둘째 며느리 성주 이씨의 이야기다. 드라마나 영화 시나리오가 될 만한 소재가 당시 역사 속에 등장한다.

임신 중이었던 성주 이씨는 고향 인근인 대구로 내려와 관비의 삶을 살아간다. 아이를 낳게 되면 아들은 죽이고 딸이면 관비로 삼으라는 어명을 받았다. 성주 이씨는 아들을 낳았고 비슷한 시기에 임신한 한 여종은 딸을 낳았다. 여종과 상의 끝에 목숨만이라도 보존하고자 아이를 바꿔치기 하게 된다. 이 아이는 외할아버지 손에서 길러져 '박비'라는 이름으로 숨어 살다 그의 나이 17세에 경상도 관찰사 이극균의 제안으로 자수를 권고 받는다. 결국 박팽년의 손자임을 밝힌 박비는 성종에 의해 특사령을 받게 되면서 대를 잇게 됐다. 그가 박팽년의 손자 박일산이다. 육신사는 원래 박팽년의 위패만을 모셨던 '절의묘(節義廟)'라는 사당이었다. 제를 올리던 어느 날 후손의 꿈에 사육신이 나타나 사당 문 밖에서 서성이는 모습을 보고 하빈사를 세워 사육신의 위패를 모시게 됐다고 한다. 이후 낙빈서원으로 사액을 받았지만 흥선대원군 때 철폐됐고, 1975년 '육신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다.



박팽년(朴彭年, 1417~1456)은 세종시대 대표 학자로서 일찍이 집현전(集賢殿)에 발탁되어 임금에게 총애를 받았다. 1432년(세종 14) 그의 나이 17세에 생원이 되고 2년 뒤 문과에 급제했다. 1447년(세종 29)에 중시에 합격해 학문이 뛰어난 사람에게 준 사가독서 호당(湖堂)에 선발됐다. 박팽년은 말수가 적고 침착한 성격을 지녔다고 한다. 소학(小學)의 예절을 실천하며 늘 단정한 품행으로 주변의 존경을 받은 인물이었다. 그의 관직생활 또한 검소와 청렴 자체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의 성품을 알 수 있는 일화가 있다. 어느 날 박팽년은 명의 천순(天順) 황제가 오랑캐에게 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그는 침실이 아닌 밖에서 짐자리를 깔고 잠을 청했다. 그 이유에 대해 물으니 “천자가 오랑캐 나라에 잡혀 있으니 내가 비록 배신(陪臣)이기는 하나, 차마 마음 편하게 자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다. 한편으로는 고지식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같은 충절로 단종 복위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을 것이다.

1456년 성삼문 등을 포함한 사육신은 단종 복위 운동을 추진했다. 이후 김질이 세조에게 밀고해 혹독한 국문을 받게 된다. 세조는 박팽년의 재주를 사모해 조용히 사람을 시켜 “네가 내게 항복하고, 같이 역모를 안했다고 숨긴다면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전했지만 박팽년은 세조를 ‘전하’가 아닌 ‘나리’로 칭하며 거절했다. 그는 심한 고문을 당해 옥사했는데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검노매라. 야광명월(夜光明月)이 밤인들 어두우랴.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고칠 줄이 있으랴.”라는 시조를 읊고 눈을 감았다. **기획** 기획·편집부

조선시대의 정취가 남아있는 조길방가옥

‘조길방가옥’은 달성군 가창면 정대 1리 한담마을에 있다. 1984년 12월 24일 중요민속자료 제 200호로 지정됐으며, 조선시대 초가집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조길방가옥은 원래 대구 동촌비행장 근처에 살던 함안 조씨의 10대조가 조선 중기 난리를 피해 이곳에 정착하면서 지은 건물로 알려져 있다. 이곳 한담마을은 경사가 급한 해발 450m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예전에는 15가구 정도 살았으나 현재는 6가구만 남아 있다. 이 마을에서는 조길방가옥이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고 한다. 마을을 둘러싼 산 전체가 서쪽으로 경사져 있어 전체 집들은 자연히 서향으로 짓게 됐다.

정착 당시인 1784년경에 지어진 안채를 제외하고 사랑채, 아래채, 부속채는 시간이 지나 다시 지은 것이다. 안채는 산자락에 터를 잡고 있어 자연석 기반을 높이 쌓고 그 위에 정면 4칸, 측면 1칸의 건물을 엮었다. 안채 앞 마당 좌우에는 각각 아래채와 사랑채가 마주 보며 전체적으로 ‘ㄱ’자형을 이루고 있다. 안채는 남부 지역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는 평면 구성이다. 2칸 규모의 마루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큰방과 부엌, 오른쪽에는 건넌방을 두었다. 출입이나 통풍을 위해 안채에 만들어 놓은 여러 개의 작은 문과 창에는 초가의 전형적인 창호 모습이 담겨 있다. 사랑채의 아래 두 칸은 방, 안채 방향에 있는 한 칸은 헛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방 전면에서 좌측과 배면 전체에 쪽마루가 설치되어 있고, 전면 우측에는 아궁이를 두어 불을 났을 수 있도록 했다.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이루어진 아래채는 좌측으로부터 곳간, 온돌방, 외양간의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특히 안방 전면 벽에 설치한 외여담이 살창문은 그 크기가 매우 작아서 출입보다는 채광과 통풍의 기능을 위해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40여 년 전 건넌방 전면 벽에도 같은 형식의 작은 살창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안채의 구조는 자연석 주초(柱礎) 위에 네모진 기둥을 세우고 방 주위에는 토벽(土壁)을 쳤는데 마루의 앞쪽 기둥만 두리기둥(둥근기둥)을 사용했다. 두리기둥의 윗머리에는 주두(柱頭)나 보아지 없이 보를 바로 얹었다. 삼량개(三樑架, 서까래를

받치는 도리가 3개 있는 지붕 구조)에 동자주(童子柱, 들보 위에 세워 도리나 마룻대를 받치는 짧은 기둥)와 대공(臺工, 마룻대를 받는 짧은 기둥)을 세운 간소한 구조로 되어 있다. 현 소유자의 조부는 이 집이 “싸리기둥에 칠기빚장(칠기나무로 된 보)집”이라며 늘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했다고 한다. 이 가옥은 흔치 않은 오래된 조선시대 초가로 안채의 평면 구성은 남부 지방 서민 주거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작은 창호에 질박한 초가의 참모습이 잘 남아 있어 주택 발달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기획 · 편집부



불사리(佛舍利)를 봉안한

용연사 금강계단

용연사에는 불사리(佛舍利)를 봉안한 보물 제539호 금강계단(金剛戒壇)이 있다. 이 계단은 통도사 불사리계단(佛舍利戒壇)의 형태를 본떠 만들었다. 높이 2m의 돌로 만들었으며, 주변에는 돌난간으로 테두리를 두른 탑구(塔區)가 있다. 계단 앞에는 배례석(拜禮石)과 함께 석등이 서 있고, 다시 그 앞쪽에는 법당이 있다. 계단은 2층의 받침돌 위에 석종형(石鐘形) 몸돌을 올린 모습이다. 받침돌은 여러 장의 큰 돌과 널돌로 면석과 덮개돌을 조립했다. 계단(戒壇)은 계(승려가 지켜야 할 계율)를 수여하는 식장이다. 이곳에서 승려의 득도식을 비롯해 여러 의식이 행해진다. 임진왜란 때 난을 피해 묘향산으로 모셨던 통도사의 부처님 진신 사리를 사명대사의 제자 청진이 다시 통도사로 이운할 때 용연사의 승려들이 그 일부를 이곳으로 모셔와 봉안했다고 한다.

아래층 기단은 네 모서리마다 사천왕상(四天王像)을 1구씩 세워두고 위층 기단 4면에 팔부신상(八部神像)을 돌을새김 했다. 뛰어난 조각 솜씨는 아니지만 섬세하고 균형감이 있어 단조로운 구조에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있다. 조선시대 유행한 양식을 보이고 있는 탑신은 별다른 꾸밈없이 꼭대기에 큼직한 보주(寶珠, 연꽃 봉오리 모양의 장식)를 조각해 두었다.

기단 주위에는 열두 개의 돌기둥을 세우고 팔모로 깎은 돌을 그 중간에 끼워 연결했다. 그 위에는 쇠창살을 촘촘히 꽃은 난간을 돌렸다. 사리탑 양쪽 앞에는 3기의 비가 서 있다. 좌측에 있는 것은 비슬산용연사중수비(琵琶山龍淵寺重修碑)로 조선 후기 문신 임수간이 지은 비문이 담겨 있다. 우측에 있는 작은 비는 석가여래중수비(釋迦如來重修碑)이며 1934년 사리탑을 중수한 사실이 적혀 있다. 석가여래중수비 옆에는 1673년 사리탑 조성 후 그 내력을 밝힌 석가여래비(釋迦如來碑)가 있다. 불사리가 용연사에 봉안된 경위가 이 비의 내용에 담겨 있다.



신라 때 스님 자장(慈藏)이... 양주(梁州=양산)의 통도사(通度寺)에 갈무리한 것이 두 함(函)으로 각 함에 2과(顆)의 사리가 들어 있었다. 임진년의 난리 때 왜적이 (탑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꺼내었으나 송운대사(松雲大師) 유정(惟政)이 격문을 보내 (사리에 따르는) 재앙과 복덕을 들어 그들을 설유하니 적들은 온전히 사리를 돌려보냈다. 송운스님이 그것을 받들고 금강산의 서산대사 휴정(休靜)에게 나아가 치분을 물었다. 휴정스님이 탄식하며 말하길 “자장스님은 신인(神人)이다. 그분이 처음 깊이 갈무리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끝내 파내어짐을 면치 못했으니, 갈무리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으며 우리에게 달리지 않은 것(누군가 함부로 파내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노릇이다”라고 하면서, 마침내 함 하나는 문인인 선화(禪和) 등에게 주면서 태백산의 보현사(普賢寺)에 안치하도록 하고 또 다른 함 하나는 송운스님에게 넘겨주며 통도사로 돌려보내 탑을 고치고 봉안하도록 했으니, 그 근본을 잊지 않도록 함이었다. 그 무렵 영남지방은 또 다시 병화에 휩싸여 대중들이 모두 새나 쥐처럼

뿔뿔이 흩어지니 (탑을 고쳐 세울) 일을 시작할 겨를이 없었고, 송운스님은 (사리를) 원불(願佛)로 모시고 어명에 따라 일본을 다녀온 뒤 곧 입적하게 되니 그 함은 치악산 각림사(覺林寺)에 남게 되었다. 그의 제자 청진(淸振)이 비슬산 용연사에 옮겨 모신 뒤 대중들과 상의하여 탑을 세워 모시기로 하되, (서산과 사명) 두 스님의 유지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1과는 통도사로 돌려보내 안치하도록 하고 1과는 용연사의 북쪽 기슭에 봉안했다. 계축년(1673) 5월 5일 탑이 이룩되니 높이가 5척 5촌이었다.

출처
- ‘답사여행의 길잡이 8 - 팔공산 자락’

기획 · 편집부

잔잔한 화음에 띄우는 따뜻한 위로

달성군립합창단 지휘자 **윤동찬**

달성군립합창단 한 명 한 명의 작은 울림이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다.

40명의 여성 합창단원들을 이끄는 윤동찬 지휘자를 만났다.

그리움을 지휘하다

‘달성군립합창단’은 지역의 문화예술 증진과 정서함양을 위해 1999년 5월에 창단됐다. 윤동찬 지휘자는 2014년부터 이곳의 지휘를 맡아 2016년까지 3회의 정기연주회를 마쳤다. 북텍사스 주립대학 ‘합창 지휘’ 석사와 박사과정을 밟은 그는 달성군립합창단과 구미시립합창단, 코람데오남성합창단의 지휘와 계명대학교에서 ‘교양 합창’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오르간을 전공한 아내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국 달라스에서 거주하며 공부해 왔습니다. 2013년 한국에 들어왔고, 제 모교인 현풍중·고등학교가 있는 달성에서 지휘를 맡고 싶었지요.” 윤 지휘자는 외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달성군이 늘 그리웠다고 한다. 특히 그는 달성군의 산과 강, 길 등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다른 어느 명소보다도 아름다운 곳이라고 강조했다.

달성, 꽃 노래

2016년 11월 3일 달성군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2회 달성군립합창단 정기연주회의 주제는 ‘달성, 꽃 노래’였다. “해마다 특정 타이틀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꽃 주제의 노래에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달성 꽃피다’라는 달성군의 슬로건도 있지만 실제로 봄에 열리는 비슬산 참꽃축제와 벚꽃축제도 유명하지요. 이렇게 꽃과 관련된 곡을 모아 두 번째 무대를 구성했습니다.” 2014년과 2015년 정기연주회에서도 윤 지휘자의 특색이 묻어났다. 달성군 개청 100주년의 2014년 10회 공연에서는 합창음악극 ‘사랑하기 때문에’를 선보이며 군민에게 사랑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2015년 11회 정기연주회에서는 합창단원이 교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여행스케치의 ‘초등학교 동창회 가는 길’,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등 추억의 노래를 불렀지요. 관객분들이 참 좋아하셨어요. 앙코르 요청이 이어지며 합창단원과 관객 모두가 하나 되어 마지막까지 신나게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웃음)”

즐겁게 노래하라

2016년 공연에서는 이전에 없던 안무가 등장했다. 노래와 안무를 함께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사실 제가 힘든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단장님과 단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었지요. 이번 공연을 성공적으로 끝내면서 저를 포함한 모두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성취감이 들었고, 걱정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올해는 ‘비(Rain)’를 주제로 공연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 지휘자는 앞으로도 화합의 장을 도모하는 여러 행사에 참석해 합창을 들려주며 군민을 위로하고 격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의 바람을 들어봤다. “개인적으로 조금 더 근사하고 연주와 공연에 적합한 연주홀이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달성에서도 어린이와 시니어 합창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합창이 많은 동네는 곧 아름다운 곳이 되지요. 좋은 공연을 만들기 위해 항상 열심히 고민하고 즐겁게 노래하겠습니다.”

홍성진 기획·편집부



우리문학의 뿌리, 아름다운 시조 운율

시조시인 박기섭

봄비는 아편 문은 하나씩의 실핀이다
일테면 또 그것은 실핀 끝의 전율이다
병그는 꽃밭 언저리, 저 난만히 번지는 독성(毒性)!

(박기섭 詩 '꽃밭에서' 전문)

자연과 인간이 결속되어 빚어낸 정서를 문학에 담는다.
박기섭 시조시인(이하 시인)이 보는 세상의 모습이
시와 시조 속에 녹아든다.

시의 원천, 어린 시절

박기섭 시인은 외가인 달성군 화원을 본리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1980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해 7권의 시집과 2권의 선집, 10권의 사화집을 냈다. “지금은 마비정 벽화마을로 유명해진 본리리가 제 고향입니다. 그곳의 산과 개울가에서 찻을 캐먹고, 가재를 잡으며 뛰어놀던 어린 시절이 제 문학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지요. 대부분의 제 시에는 자연과 인간이 결속해서 만들어낸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박 시인은 ‘시조시인’이다. 그는 자유로운 형식의 시와 일정 형식을 갖추고 있는 우리 고유의 시조를 함께 써왔다. 시조는 시의 감성으로 풀어내면서도 시조 고유의 형식을 따라야 한다. 박 시인은 중앙일보에서 시행하는 중앙시조대상과 고산문학대상, 이호우문학상, 백수문학상 등 시조단의 주요 문학상을 두루 받은 바 있다. 그는 현재 골동과 미술품의 가치를 추구하는 ‘갤러리 품’을 열고 문학 활동을 병행하며 일간지 신춘문예와 문학상 등의 심사를 맡기도 한다.

절제와 균형의 율조림

박 시인은 중학교 3학년 무렵 집 마루에서 소나기를 쳐다보며 시마(詩魔, 시를 지을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마력)에 들렸다. 시를 쓰고 싶은 마음의 열병이 마치 묵은 감기와 같았다고 한다. 그는 세계 문학사에 내세울만한 것이 바로 시조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한시, 일본의 하이쿠, 서양의 소네트처럼 시조 또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조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덕목은 ‘절제와 균형’입니다. 혹자는 시조가 형식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시조는 형식에 갇힌 게 아니라 일정한 형식을 ‘갖춘’ 아름다운 문학이라고 할 수 있지요.” 3장 6구 12음보 45자 내외의 시조를 쓴다는 것은 어쩌면 자유로운 시를 쓰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아닐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조를 가까이하고 체화의 과정을 겪다 보면 감각이나 운율이 시조 형식에 맞게 저절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퇴고를 거듭하며 길게 풀어놓은 글을 시조 형식으로 다듬기도 하지요.”

문학이 피는 마을

‘川内三洞 혹은 本里一·二洞 언저리로 / 은은히 뽀치어 있는 놀빛은 默想이다’ (박기섭 詩 ‘本里洞口·3’에서). 박 시인은 달성군 본리리를 표현한 ‘本里洞口’와 화원의 장터를 나타낸 ‘파장’ 그리고 ‘비슬산 그늘’ 등 달성에 관한 시를 여러 편 지었다. “달성은 제 시의 자양분이 되어준 곳입니다. 그곳 산천이나 골짜기 그리고 제가 걸어 다녔던 길, 그 생김새와 명칭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본리동구’의 경우 늦가을, 초겨울 무렵의 맑고 투명한 본리리의 계절감을 시화한 것입니다.” 박 시인은 “달성군의 유구한 유교·불교 역사를 좀 더 문학적인 시각으로 해석했으면 합니다. 인흥사 터와 일연스님, 김광필 선생과 동동서원, 사효자굴과 십이정려각 등의 이야기를 테마별로 깊이 있게 다루어 간다면 보다 의미 있고 풍요로운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라며 달성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그는 시조시인으로서 시조 문학에 대한 바람도 잊지 않았다. “여러 문학 장르가 소멸될 가운데 현재 현대시의 하나로 시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문학의 뿌리가 된 거례시이자 전통시인 시조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기획·편집부



그 ‘어른’들의 시간과 흔적을...

미술작가 박중식

‘턱없이 가벼워진 어머니를 안아본 사람은 가벼움의 아픈 무게를 안다.
가벼움을 얻기까지의 무거웠던 세월을...(제26회 박중식 紙上展 ‘순례길에서’)
수려한 풍광과 경관을 그린 박중식 작가의 그림이
사람들에게 지나온 세월의 묵직한 의미를 던진다.
가만히, 그의 작품에 시선이 멈춘다.



화가(畫家)

계명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박중식 작가(70)는 지금까지 26회의 개인 전시회를 열었다. 대구와 서울, 부산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빈, 일본 도쿄·나고야·오사카 등 국제무대에도 그의 작품이 전시됐다. 대구 도심에서 교편을 잡았던 그는 2000년 학교를 나와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산골마을로 거주지를 옮겼다.

“1999년 화가였던 제 형님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에게는 학교 선배이자 스승이며, 친구인 형이었지요. 형이 못 다한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다짐하며 ‘화가’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무렵 성당을 짓는데 도움을 주며 가창으로 자주 내방했고, 주변인의 추천으로 이곳에 터를 잡게 됐습니다.” 박 작가는 현재 달성군 참꽃 갤러리 운영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림의 무게

“저의 첫 번째 개인 전시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972년 당시 전시회에는 잔칫상이 차려졌다. ‘내 그림’ 전시가 낯설고 부끄러웠던 박 작가는 전시회가 진행되는 동안 테이블 보 아래로 몸을 숨겼다고 한다. “2시간을 그렇게 가만히 있었습니다.(웃음) 대신 사람들의 적나라하고도 극명한 평가를 모두 들을 수 있었지요. 그때 그림의 진정한 의미를 인지하고, 앞으로 제 그림의 방향도 설정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후 그는 1983년 대구 화가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을 받았다.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날 그의 작품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예전에는 화려한 외면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내면, 세월의 때를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며 형님을 생각하고, 엄마의 가녀린 어깨를 잡고 일으켰을 때의 가벼움보다 엄마가 살아온 세월의 무거움, 그 ‘어른’들의 시간과 흔적을 그리려고 합니다.”



꿈의 화원

2016년 박 작가는 달성군 12곳을 그려 엮서로 제작하는 ‘화가 본 달성의 풍광’에 참여했다. 그는 남평문씨 본리 세거지와 비슬산 설경, 옥연지 송해공원을 그림에 담았다. 박 작가에게 가장 영감을 받은 달성군 명소에 대해 물었다. 그의 대답은 특정 장소가 아니었다. “화원(花園)이라는 지명이 참 좋습니다. 그곳에는 교도소가 있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치유될까 생각해봅니다. 도동서원, 사문진 나루터, 마비정 벽화마을 등 이름난 명소가 많지만 이 화원이라는 이름 자체가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곧 이젠 하게 될 화원 교도소를 그대로 이용해 문화센터를 설립하자고 달성군에 제안했다고 한다. 박 작가는 꽃의 정원 ‘화원’의 근사한 미래를 그리며 그의 바람을 전했다.

“누군가는 사람을 치료하고, 법을 만들고, 과학을 연구하며 또 누군가는 글을 써야 하고, 음악을 만들고, 그림도 그려야 합니다. 사회성보다 돈이 더 중요한 이 사회에서 서두른다고 의식 구조가 개선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 깃든 예술가들이 얼마나 멋진 세상을 만드는지 꼭 보여주고 싶습니다. 소외된 예술가들을 모아 마음껏 음악과 문학을 창작하고, 그림도 그리게 하는데 계단 하나, 벽돌 하나를 얹어보려고 합니다.”  기획·편집부

눈 깜빡거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록

달성군 전국사진공모전 심사위원장 배원태

지난 12월 5일에 '제5회 달성군 전국사진공모전' 시상식이 열렸다. 달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본 달성의 참 모습을 한데 모았다. 심사위원장 배원태 작가를 만나 공모전 뒷이야기를 나눴다.

거듭 발전하는 작품

‘달성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산, 그리고 달성의 발전상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예술적으로 잘 표현한 작품’이 이번에 개최된 사진공모전의 심사 기준이었다.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회 부회장인 배원태 작가는 “해를 거듭할수록 수상작을 선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소재와 탁월한 기법이 도입된 우수한 작품들이 출품되고 있습니다. 작년 처음으로 스마트폰 부문이 생겨났고 앞으로 이 부문의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여러 계층의 사진 애호가들이 더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라며 ‘제5회 달성군 전국사진공모전’의 총평을 전했다. 공모전 심사는 예심과 결심 단계로 나뉘어 입상작을 가려낸다. 수상작의 작품 수준을 보장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결심에서는 작품을 놓고 심사위원 간 허심탄화한 토론이 열리기도 하며 대부분 심사위원 전원일치로 수상작이 결정된다.



잘 찍은 사진 한 장

작년 공모전에는 일반부문 335점과 스마트폰 부문 252점이 접수됐다. 금상, 은상, 동상, 가작, 입선 등 전체 5개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했고, 일반부문 37점과 스마트폰 부문 15점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금상 수상자인 김은란 씨의 ‘송해공원 백세교’에는 최근 달성군이 의욕적으로 조성한 송해공원의 잔잔한 옥연지 물결과 그곳에 비친 백세교의 반영이 담겨 있다. 저수지와 백세정 주위의 곡선미가 잘 드러난 작품이다. 은상을 받은 김미경 씨의 작품 ‘첫눈의 미소’는 갓 결혼식을 올린 신랑·신부 장승이 첫눈이 반가워 어쩔 줄을 모르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작품이고 또 배창기 씨의 ‘안갯속의 금호강과 세천리’는 살기 좋은 달성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잘 표현한 작품이다. 배 작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진으로 동상을 받은 김대식 씨의 ‘행복한 우리 가족’을 꼽았다. “2016 강정 대구현대미술제에 전시된 김기조의 ‘세상살이’라는 설치 미술 작품 꿈무늬에 한 가족이 작품과 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함께 어울려 동심의 혹은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익살스럽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보며 어린 시절 친구들이 생각나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문화 프레임 속 달성

달성군은 사진공모전을 통해 달성 고유의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며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이 지역이 가진 전통과 역사, 문화를 알리고 있다. 낙동강을 비롯한 도동서원, 화원동산, 사문진 나루터, 마비정 벽화마을, 육신사 등의 달성 명소와 달성 100대 피아노, 강정 대구현대미술제 등 굵직한 문화 콘텐츠가 뼈대가 되어 공연, 연극, 전시, 공모전 등 군민이 체감하는 다채로운 문화 가치를 뽐내내고 있다. 배 작가는 “달성은 눈부신 문화 콘텐츠를 계속해서 발굴하며 현대와 전통의 조화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사진공모전의 발전 방향에 대한 견해를 언급했다. “수상작 수를 더 늘렸으면 합니다. 달성의 공모전은 한국사진작가협회에서 실시하는 공모전 수상작 비율 2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수상작 비율을 높이면 참여 인원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더 다양한 분야를 사진에 담으며, 그만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편집부

바다와 관광의 도시, 케언즈를 가다

호주의 대표적 관광 도시인 케언즈.

뜨겁지만 즐거운 더위 속 12월의 케언즈는 그야말로 경쾌한 지상낙원을 연출한다.

케언즈(Cairns)는 호주 퀸즈랜드 주의 북부에 위치해 연중 따뜻한 기온을 자랑하는 작은 관광 도시이다. 대표적 관광지로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Great Barrier Reef)와 쿠란다(Kuranda) 등이 있으며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다양한 해양스포츠와 액티비티를 즐기기 위해 케언즈를 찾는다.

케언즈 시티의 중심에는 이곳의 랜드마크인 라군(Lagoon)이 있다. 라군은 인공으로 만든 야외 수영장으로 마치 작은 해변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인상을 자아낸다. 이곳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수욕을 즐기는 현지인과 관광객들의 여유로운 일상의 풍경화가 펼쳐진다. 라군은 케언즈 지역의 유지들이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사비를 기부해 조성된 곳으로 샤워실, 화장실, 바비큐장 등 각종 제반 시설이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이 일대를 산책하다 보면 새하얀 배들이 가지런히 정박해 있는 선착장과 조우하게 되는데 그 주변으로 분위기 좋은 바(bar)와 음식점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라군의 주변에는 케언즈 지역 갤러리(Cairns Regional Gallery)가 자리하고 있다. 이 갤러리는 전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대체로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작품들이 전시돼 잠깐의 쉼을 얻어갈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다.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갤러리는 각 층에 각기 다른 전시가 진행 중이었다. 1층에는 '케언즈 미술협회 제69회 미술 전시회(Cairns Art Society 69th Annual Art Exhibition)'가, 2층에는 '2015 더그 모간 국립 초상화 상(2015 THE DOUG MORAN national portrait prize)'의 수상작들과 유키 키하라(Yuki Kihara) 작가의 전시가 한창이었다. '더그 모간 국립 초상화 상'은 호주 내의 초상화 공모전으로 1988년 개최되어 28년간 지속되어 온 명성 높은 공모전이다. 3층에서는 조안나 로버츠(Joanna Roberts)라는 작가의 곤충을 소재로 한 전시를 관람할 수 있었다.



시티의 또 다른 볼거리는 바로 나이트 마켓(Night Market)이다. 호주에서 유일하게 케언즈에서만 만날 수 있는 '나이트 마켓'은 여행객들이 각종 투어에서 돌아오는 늦은 오후 4시 30분부터 저녁 11시까지 운영된다. 다양한 기념품들과 호주의 특산물, 액세서리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나이트 마켓은 케언즈의 독특한 관광 문화의 한 페이지를 그려낸다. 이곳에서 상점을 운영하며 케언즈에서 10년째 거주 중인 데이비드 황씨는 "나이트 마켓은 그야말로 저녁 무렵 케언즈의 불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케언즈를 잠깐 다녀가는 관광객들이 호주식 '밤시장'을 체험하고 케언즈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다이나믹 정글 탐험, 쿠란다

영화 아바타의 배경이 된 지역으로 알려진 쿠란다. 케언즈에서 약 25km 정도 떨어진 쿠란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열대우림 지역으로 케언즈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단연 인기 있는 여행지이다. 이 지역의 명물로는 울창하게 우거진 밀림과 베런폭포, 오리너구리 등이 있는데 호주의 특색 있는 자연환경을 맘껏 음미할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이곳으로 가는 여정 또한 즐겁다. 케언즈 시티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타거나, 스카이라일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며 주로 오고갈 때 두 가지 루트를 각각 편도로 이용한다. 기차를 타고 쿠란다로 가게 되면 약 두 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데 창밖으로 펼쳐진 멋진 경관을 감상하다 보면 눈 깜짝 할 새에 종착역에 다다른다. 역에서부터 쿠란다의 다채로운 볼거리가 펼쳐진다. 역에서 조금 걸어 나오면 빌리지(Village)가 보인다. 이곳에는 각종 음식점과 가게, 호텔 등이 자리하고 있어 쿠란다를 찾는 관광객들 쉼터가 되는 곳이다. 길을 따라 걷다 인포메이션센터에 다다르면 쿠란다 투어를 위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버스를 타고 어트렉션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본격적인 쿠란다 투어를 시작한다. 단연 인기 있는 어트렉션은 '아미덕(Amy Duck)'이다. 이 체험을 신청하면 아미덕을 타고 쿠란다 정글의 동식물에 관한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탐험이 가능하다. 이 밖에 동물원과 나비보호

구역의 나비체험, 호주 원주민인 에보리진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코너 등 다양한 관광 코스를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다. 모든 체험을 끝내고 돌아갈 때는 스카이라일을 이용해보자. 스카이라일을 타고 돌아가게 되면 중간역인 베런폭포역에서 베런폭포를 감상하고 레드픽(Red Peak)역에서 산책 후 모든 여정이 마무리 된다.



여유와 낭만의 바닷가, 포트더글라스

포트더글라스(Port Douglas)는 케언즈에서 차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관광도시로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지역이다. 케

언즈에서 포트더글라스로 이어지는 해안도로의 경관 또한 일품으로 가는 내내 지루하지 않은 여정을 선사한다. 포트더글라스 시내에 다다르기 직전에 포마일 비치(Four Mile Beach)와 렉스전망대(Rex Lookout)를 만날 수 있다. 렉스전망대에서는 포마일 비치와 바다의 정경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어 지나가던 행인들의 발걸음을 사로잡는다. 또한 이곳은 바닷바람을 이용한 패러글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의 명소이기도 하여 바람에 맞서 바다로 점프하는 패러글라이더들의 짜릿한 도전도 목격할 수 있다. 렉스전망대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포트더글라스의 중심지인 매크로스 거리(Macrossan st.)가 나온다. 매크로스 거리의 샵들과 음식점들이 케언즈 시내와는 사뭇 다른 인상을 자아낸다. 매주 일요일 이곳의 안작파크(Anzac Park)에서는 선데이마켓이 열리는데 다양한 공예품과 볼거리로 즐거운 한때를 보낼 수 있다. 포트더글라스의 또 다른 명물은 '와일드 해비테트(Wild Habitat)'이다. 포트더글라스 시내에서 10분 정도 이동하면 갈 수 있는 동물원으로 수백종류의 새들과 캥거루, 코알라 등의 호주 대표 동물들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의 간판 스타는 화식조이다. 화식조는 뉴기니 섬 및 오스트레일리아 북동부에 서식하는 매우 오래된 종의 새로 현생인류보다 오래 전에 출현했다고 한다. 와일드 해비테트는 동물을 우리에 가두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관람객들과 동물들이 한데 어울리게 하여 야생에 가까운 동물들과 교류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인기이다.

만개한 문화 관광의 꽃, 케언즈

케언즈는 시내 자체는 도보로 한 두시간 정도면 둘러볼 수 있는 작은 도시이나 주변의 관광자원을 잘 활용해 전세계인들이 집중하는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지금의 케언즈가 있기까지는 천혜의 관광자원이 물론 큰 몫을 한건 사실이지만 지역사회의 열정적인 헌신과 노력이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했을지는 미지수다. 케언즈의 상징인 라군만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후원으로 완성된 시설로서 남녀노소 국적에 상관없이 만민에게 오픈되어 있다. 이 시설을 관광객들이 무료로 이용하게 함으



로써 주변 상권 형성에 기여하였으며 그로 인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크나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천혜자연을 활용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이를테면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 기술과 인력이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쿠란다와 케언즈를 잇는 철도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이는 당시 인부들의 희생과 열정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 현재 케언즈에 오면 이 철도를 이용한 쿠란다 여행이 필수 코스로 정착될 만큼 그들의 희생은 훗날 크게 빛을 발하게 된다.

한날 돌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탈바꿈해 상품화되는 것은 그 이전에 수많은 가공을 거쳐야만 한다. 문화도 마찬가지다. 내버려두면 문화는 문화로 남을 뿐이지만, 손질하고 정성을 들이면 관광상품으로 탈바꿈 돼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향기가 된다. 케언즈 여정을 통해 오래지 않은 호주 이주의 역사 속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과 열정을 아끼지 않았던 과거 시민들의 노력과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언젠가 케언즈를 방문했을 때 작은 도시가 이뤄낸 성공신화를 한번쯤 떠올려 본다면 더 의미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획 · 편집부



교토예술센터 교토의 문화예술을 만들다

일본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교토, 이른 아침부터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교토 시가지는 활기가 넘친다. 교토 시내의 한편에 자리 잡은 교토예술센터.
교토의 문화예술 현장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이곳으로 예술 산책을 떠나보자.



교토에는 수많은 유적지들, 볼거리들이 있다. 그 중 교토예술센터는 1900년대 일본의 정취를 느끼며 교토의 화석이 아닌 현재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색다른 공간이다. 만약 여행에 지치거나 일상의 힘듦을 잠시 내려놓고 싶다면 교토예술센터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이곳의 카페에 갇혀 앉아 넓은 나무마루의 발걸음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미 100살을 넘버버린 골동품 같은 건축물과 눈길을 마주하면 문득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선물처럼 찾아온다.

시민과 공존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 설립

교토하면 일본의 전통과 역사가 살아있는 오래된 도시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의 도시라는 얼굴의 이면에 예술의 도시라는 이야기가 숨어있다. JR교토역에서 지하철로 두 정거장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교토예술센터'가 바로 이 예술 도시 이야기의 중심이 된다. 교토예술센터는 단순히 정부의 독단적 계획에 의해 설립된 기관은 아니다. 처음 이곳은 1869년 설립된 메이린 소학교(明倫小学校) 건물이었으나 1993년 폐교가 결정되면서 어떤 시설로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폐교 후 1998년까지 본 건물은 교토의 예술축제 등의 장소로 활용해 원래의 소학교 건물이 정말로 예술의 장이 될 수 있는지, 주민에게 받아들여질지 여부를 관찰 후 교토예술센터의 설립을 결정했다. 이렇듯 시민들의 의견과 현실적 가능성을 적극 검토 후 본 센터는 2000년 4월에 개관하기에 이른다.





옛 건물 그대로의 따뜻한 건축물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품고 있는 곳이라서인지 본 건물은 옛 시설을 그대로 활용했다. 백여 년 전부터 이곳에 놓여있었을 것 같은 클래식한 테이블, 소박한 창문, 빛바랜 스테인드글라스와 조명시설들이 노스텔지어의 감성에 흠뻑 취하게 한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뽁뽁 나무마루 소리가 정감 있게 울리는 가운데 옛 모습 그대로의 교실에는 작가들의 미술작업들이 한창이다. 작업실은 시간대별로 각 작가들의 작업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 한 교실에서 여러 명의 작가가 교대로 작업한다. 센터는 작가들에게 작업실을 제공하고, 그 대신 작업실을 제공받은 작가는 작업에 대한 시민발표회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

아치형의 복도와 투박한 기둥 구조물로 이루어 보아 이 건물은 고대 로마네스크의 고전을 계승한 르네상스 건축 양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층에는 사무실과 회의실 그리고 스튜디오와 카페,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전단지를 보관하는 방, 도서관, 갤러리 등 가장 많은 종류의 공간들이 모여 있었고 2층에는 작가들의 작업실과 강당이, 3층에는 작업실과 워크숍 룸, 마지막으로 4층에는 다이나믹 전통 관련 기획을 위한 일본식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센터의 공간들은 넓었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일본 특유의 분위기를 한껏 머금고 있어 건물을 둘러보는 내내 일본의 옛것에 대한 향수를 느낄 수 있었다.

이곳에서는...

작가들의 작업실뿐만 아니라 전시, 공연, 음악, 문화수업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들이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예술가는 물론 일반시민 나아가 외국인들과 함께 문화예술에 관한 모임과 행사가 활발하게 열리고 있다는 점이다. 교토예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사업은 크게 전시, 댄스 및 공연, 전통, 음악 이렇게 4개 부분으로 나뉜다. 전시는 매달 센터 내의 공간을 활용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시 내용은 실험적 설치 미술부터 회화에 이르기까지 센터의 각 전시실을 활용하여 실현 가능한

모든 장르의 전시가 열린다. 댄스 및 공연은 옛 소학교의 강당에서 주로 열리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을 받아 진행됐다. 일본 전통 춤을 비롯한 몸의 표현에 관한 워크숍 등 다양한 공연 장르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 부분에서 흥미로운 프로그램은 '전통 공연 트레이닝(Traditional Theater Training)'이다. 벌써 32년째 지속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국내는 물론 국외의 외국인들로부터 연초에 모집을 받아 3주간 3종류의 일본 전통 춤을 습득하고 발표회를 가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지역 예술 진흥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보존하기 위한 교토예술센터의 노력이 단연 돋보이는 기획 프로그램이다. 음악 부분은 사운드 인스톨레이션 전시를 비롯해 콘서트와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음악 장르를 선보여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 체험 기회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교토예술센터는 다양한 문화 기획을 통해 교토의 문화예술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이를테면 올해 '펠트슈텔케 인터내셔널 2017(Feldstärke International 2017)'이라는 행사를 기획 중이다. 이 행사는 전 세계 3개 도시를 선정해 각국의 미술전공 학생들을 10명씩 모집하여 3개 도시에 일정 기간 머물면서 공동작업과 워크숍을 진행하는 행사로 젊은 예술가 양성과 국제 교류에 기여하는 의미의 프로그램이다. '2017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일본의 교토시와 한국의 대구시, 그리고 중국의 창사시가 선정돼,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 프로젝트를 1년간 추진할 계획에 있다. 여기서 교토예술센터는 펠트슈텔케 인터내셔널을 그 행사의 한 가지 기획으로 편성해 한·중·일 예술가들의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과거와 현재가 스며있는 장소

역사의 도시 교토시에 위치한 교토예술센터는 현시대를 살아가는 교토시민들의 문화를 풍요롭게 해주고 있다. 예술가와 예술가, 예술가와 시민들, 시민과 시민들이 모든 관계를 엮기설기 엮어나가며 문화예술의 관심 확장과 일본 전통문화의 보전을 동시에 일궈 나가려는 교토예술센터의 노력은 그 누구 하나 문화적 소외자로 남기지 않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때로는 심도있게 때로는 러프하게 그들이 그리는 풍경화는 자연스레 교토의 일상에 스며들어 모든 이들이 문화의 품에서 듬뿍 위로받게 한다. 말하자면 과거도 중요하나, 역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이 더욱 중요하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속삭이듯 묵묵히 실현시켜간다. 옛것들 사이에 반짝이는 현재의 이야기들이 속속들이 숨어 있는 곳이라고 할까. 교토예술센터를 나오면 다시 현대적 건물이 즐비한 시내가 보인다. 시간여행을 다녀 온 듯한 착각이 들지만 낯설진 않다. 교토의 시간이 흐르듯 세상의 시간은 흐른다. 모든 '새것'은 '오래된 것'이 될 운명인 것처럼, '새것'을 소중히 해야 '오래된 것'이 소중해진다는 단순한 사실이 머릿속에 맴돈다. 특별기획 기획·편집부



달성하빈들소리

달성하빈들소리는 달성군 하빈면 일대에서 자생되어 지금까지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전해 내려오는 토속민요다. 하빈면은 대구 중심부에서 북서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진 달성군 최북단에 위치하며 남북으로 흐르는 하빈천 기슭에 하산(霞山)들과 대평(大坪)들이 형성되어 있으며 낙동강 만곡부에 넓은 충적평야로 이루어져 있다.

하빈(河濱)은 이름에서처럼 낙동강변의 제방을 끼고 있어 장마 때마다 큰물로 인해 피해가 적지 않았다. 그럴 때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쳐 제방을 쌓으며 수해를 극복했다. 이 지역에는 삼사백년 전부터 농사꾼들이 농사일을 할 때 일의 고달픔을 달래고 능률을 올리기 위해 노래를 불러 왔다. 농번기가 되어 논에 모를 심고 김을 맬 때면 들녘 여기저기 소리가 울려 마치 야외무대와 같은 소리의 향연이 펼쳐졌다. 근래에는 이곳을 비롯해 농가마다 기계식 영농방식이 보급되어 들소리가 현장에서 사라지고 사람들 기억에서 점차 잊혀져가고 있다.

다행히 하빈에서는 손봉회(孫鳳會, 75세)를 중심으로 1995년 〈하빈풍물보존회〉를 창단해 잊혀져가던 사설을 기억해내고 읊조리던 가락을 떠올려 달성하빈들소리를 정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2000년 〈달성하빈들소리보존회〉를 결성하여 하빈면 대평리 511번지(구 대평초등학교)에 전수관을 마련했다. 2008년 4월 10일 대구광역시로부터 무형문화재 제16호로 지정받아 들소리의 보존과 전승에 더욱 힘을 쏟고 있다. 하빈의 들소리는 소리가 보존될 수 있는 농촌 환경으로 마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중 하나다.

달성하빈들소리는 낙동강 줄기를 타고 위쪽 지역의 가락과 사설이 지역에 전파된 것으로 보이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지역 정서에 맞게 변용되어 오늘날까지 전승된 것으로 보인다. 이 들소리는 경상도민요의 음악적 특성인 메나리토리가 잘 반영되어 있으며 논농사 때 부르는 모찌기소리나 모심기소리와 같은 경우 최고 ‘미’음에서 서서히 하행하여 ‘미’로 종지하는 선율선을 갖는다. 이때 구성진 메나리토리의 선율은 덧배기장단으로 흥청거리는 멋이 있다. 가창방식은 대부분 농요에서 한 사람이 앞소리를 하고 난 다음 나머지 사람들이 일정한 사설의 후렴구로 뒷소리를 반복하는 ‘선후창방식’이지만 모심기소리는 앞소리와 뒷소리의 사설과 음악이 대등한 관계를 이루며 주고받는 ‘교환창방식’으로 다른 지역 들소리보다 훨씬 높은 예술성을 갖는다.

〈앞소리〉“모야~ 모야~ 노랑 모야~ 언제 커서 열매 열래”

〈뒷소리〉“이 달 가고~ 저 달 커서~ 내 훗달에 열매 열래”

들소리의 과정은 모두 열 개의 소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해 농사를 짓는 순서와 일치한다. 먼저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들지신밟기를 시작하여 가래질소리, 망깨소리, 목도소리, 타작소리, 모찌기소리, 모심기소리, 들길소리, 논매기소리, 마지막으로 치나칭칭나네까지다. 오늘날 농사현장에서 들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선조들이 불렀던 소리를 우리 지역 하빈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다. 더욱이 대도시 대구 주변에 들소리가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은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만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작곡가 유대안



강정 대구현대미술제

대구문화예술회관 학예연구사 **박민영**

이 글은 '대구현대미술제'의 전개와 양상을 기록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그러한 기록 가운데 발견되는 특징적 활동과 의미에 주목하고, 그 배경을 나름대로 추론해 보았다. 대구현대미술제는 한국 미술계의 1970년대 AG(아방가르드미술협회), S.T 등 전위적 활동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다른 활동과 비교되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개최되었고, 그 활동이 여러 단체나 지역, 작가를 아우르는 활동이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 활동이 기록제가 되어 전국 곳곳에서 현대미술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는 등 큰 파급력을 보여주었다. 이 전시는 당시 신진 세력이 전위적 미술을 흡수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결집했고, 이러한 움직임들 가운데서 결집된 세력 내부에서는 작가 개개인이 스스로 작품의 돌파구를 획득하려 함으로써 대구현대미술제는 한국 화단의 전위적인 작가 군을 형성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했다.

외형적인 특징 외에도 내용면에서 독특함을 볼 수 있다. 대구현대미술제 야외 이벤트의 배경이 되었던 강정과 냉천 등의 자연은 전례가 드문 작품을 탄생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대구현대미술제는 당대의 모든 미술 형식의 가능성과 동양의 정신적 배경을 녹여 나온 활동이라 볼 수 있다. 이들의 활동은 지역적 필연성이 있으면서도 지역을 넘어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좁게는 대구와 그 주변의 낙동강을 잇는 자연, 그리고 영남 지역의 정신적 문화가 작가들의 토양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성이 있다. 국내의 전위적 활동을 연결하는 보편성이 전국 곳곳에서 참여한 작가들의 면면으로 구축되었다는 점에서다. 또한 그들은 유물선이 어우러진 한국, 넓게는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정신세계를 작품에 녹여냈다고 본다. 따라서 대구현대미술제는 대구와 강정 일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지역의 범위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정신적인 원류를 본다면, 한국의 또는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 이 글은 이러한 작업을 기초하는 기록 중 하나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현대미술연구소 대표 **김옥렬**

2016년 5회째 이루어진 <강정 대구현대미술제>는 1970년대 <대구현대미술제>와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1970년대에 다섯 번의 <대구현대미술제>가 이루어지고 삼십년이 넘는 세월을 훌쩍 넘어 2012년 '강변랩소디'로 재탄생했었다. 그리고 매년 강정 디아크(The ARC) 광장 주변, 자연과 도시가 인접한 광장공원에서 다섯 번의 미술제가 진행됐다.

『강정 대구현대미술제』, 이 책은 달성문화재단에서 그간에 진행되었던 강정 전시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구성된 내용이다. 강산이 세 번 변하고도 남을 시간의 공백을 뛰어넘어 재탄생된 <강정 대구현대미술제>는 2016년 5회까지 진행되었고, 필자가 전시감독을 하면서 수집한 자료들, 전시를 위한 인터뷰와 학술세미나를 포함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책의 의미는 강정이라는 특정한 장소가 가진 '과거의 미래'라는 시·공간적 연결고리 속에서 현재가 갖는 의미를 찾는 것에 있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이자 그 둘을 품고 자라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얘기할 수 밖에 없고 또 미래 역시 현재를 딛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기에 이 책은 '과거의 미래'라는 시·공간적 연결고리를 가진 <대구현대미술제>에서 <강정 대구현대미술제>로 이어지는 아카이빙으로 하나의 도시에서 이루어진 과거의 미술을 발굴하고 또 그 역사와의 연결고리 속에서 미래의 미술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기 위한 책이다.



달성의 먹거리

푸드스토리텔러 **이춘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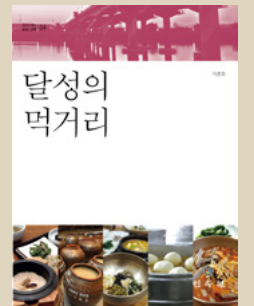
달성문화재단으로부터 집필 의뢰를 받았을 때만 해도 이 책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솔직히 필자는 속으로 '달성군에 무슨 음식'이라며 달성음식을 폄하한 것도 사실이다. 달성군지조차 달성의 식문화는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 1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현장을 찾아 식행을 했다. 이 책은 모르긴 해도 달성군의 저작물 중 음식을 주제로 엮은 첫 저작물인 것 같다. 필자는 10년 전 대구시의 의뢰를 받아 '달구벌의 맛과 멋'이란 대구음식 기행기를 펴낸 바가 있다. 그때 따로국밥 맛의 원천이기도 한 다끼파가 70년대 초까지 화원유원지 파시장에서 대량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다.

달성은 '진수(眞水)의 고장'이다.

화원읍 본리리 남평문씨 세거지에 고려 때 일연 선사가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되는 인흥사 시절의 우물이 아직 '고려정(高麗井)'으로 살아 있었다. 특히 가창면은 '약수의 고향'이다. 냉천은 한천(寒泉), 일명 '찬샘 동네'로 유명하다. 특히 냉천의 지명을 암시하는 한천이란 글씨가 석각된 약수터가 아직 청수를 팔팔 쏟아내고 있다. 특히 가창면 행정리에는 한때 전국 각처에서 속병 앓는 사람들이 줄지어 몰려와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던 '황물탕'이 아직도 존재한다. 가창면 옥본리에는 옷으로 인해 알레르기성 피부질환을 앓는 이에게 즉효였던 '옷약수탕'도 있다. 게다가 30여 년째 지역민에게 무료로 개방된 대림생수는 한 독지가의 온정이 담긴 '자원봉사수(自願奉仕水)'로 사랑받는다. 이런 수질 덕분에 청도 한재 미나리와 힘을 겨룰 수 있게 된 국내 메이저급 미나리로 등극한 정대미나리가 태어날 수 있었고 재차 화원읍 본리, 명곡 미나리촌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었다. 그런 명수가 있었기에 전국 최고의 미질을 갖고 있는 '유가참쌀', 그 쌀이 있기에 1급 전통주 '하향주'도 가능했다.

낙동강변 사질토 덕분에 하빈면 봉촌리는 전국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대구시 동구 반야월 연근보다 근질(根質)과 점착력이 더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구레(소의 가죽과 살점 사이에 형성된 기름덩어리 같은 지육)로 국을 끓이는 현풍장의 소구레국밥의 맛도 전국 3대 곰탕으로 불리는 현풍곰탕과 함께 달성 탕반문화에 일조했다. 강정과 강창매운탕촌은 달성군은 물론 대구의 양대 매운탕촌으로 주목받았다. 두 곳은 한때 화원유원지, 옥포 옥연지 등과 함께 전국 군단위에서 가장 많은 매운탕을 팔기도 했다.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다시읍은 부곡~문산~문양을 축으로 '논메기매운탕 특구'로 급성장했다.

가창면 우록리는 전국 첫 염소싸움대회를 열 정도의 '염소 특구'였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찰비빔밥과 사찰한정식의 신지평을 연 '백년밥상'과 사찰비빔밥도 달성음식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가창면 백록 골짜기에는 전통방식으로 다슬기 원액을 추출하는 장인이 살고 있다. 이밖에 한국 식초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준 구관모식초 등도 달성 음식의 토대를 굳건하게 형성시켜 주었다.



산골마을에 앉은 담아한 색감 소박한 동심

마비정 벽화마을

가끔은 잿빛 도심에서 벗어나 낮은 담벼락 너머로
웅기종기 모여든 마을을 바라보고 싶을 때가 있다.
달성의 보물 '마비정 벽화마을'이 사람들의 여정을
빼곡히 채운다.

담장에 그린 옛 마음

대구 달성군 화원읍 본리2리의 다른 이름은 '마비정(馬飛亭) 벽화마을'이다. 마을 전체 35가구에 6~70년대의 정겨운 농촌 풍경을 토담과 벽담을 활용해 벽화로 꾸몄다. 어릴 적 추억을 되새기게 하는 해학적이며 익살스러운 그림과 함께 옛 소품들이 놓여있다. 마을 한편에는 짚을 엮어 만든 기다란 줄 위에 소원이 적힌 수십 개의 하얀 종이가 묶여 있다. 또한 사랑나무로 일컫는 연리목과 연리지, 우리나라 최고령 옷나무, 대나무·이팝나무 터널길 등 벽화마을 주변에 어우러진 자연환경이 관광의 풍성함을 더한다. 이 밖에도 장수바위라고 불리는 '거북바위'와 '남근 깃바위', '물레방아', '농촌체험 전시장', '느림보 우체통'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본리2리는 어떻게 마비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일까.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馬)에 관한 슬픈 전설이 있다고 한다.



마비정(馬飛亭)의 전설

먼 옛날 이 마을 대나무 숲에 하루 천리를 달리는 '비무'라는 수말과 '백희'라는 아름다운 암말이 살고 있었다. 비무는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백희가 먹을 꽃과 약초를 가져왔다. 어느 날 비무가 꽃과 약초를 구하러 간 사이 '마고담'이라는 장수가 이곳을 지나게 된다. 마고담은 백희

를 천리마 비무로 착각해 전쟁터로 나갈 것을 제안하며, 화살보다 빨리 달리는 천리마의 실력을 보길 원했다. 백희는 비무가 전쟁터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을 비무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화살과 함께 달렸지만 따라잡을 수 없었다. 마고담은 화를 내며 단숨에 백희를 베었고 뒤늦게 돌아온 비무는 백희의 주검을 보고 슬피 울었다. 이후 비무의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백희의 무덤에는 늘 꽃과 약초가 놓여 있었다. 세월이 흘러 온 나라에 역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이 마을에는 백희 무덤에 놓인 약초로 역병이 돌지 않았다고 전해 내려온다. 사람들은 마을길과 나무에 대나무 풍경을 달아 비무가 온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알리고자 나무 나팔을 불었다. 또한 비무를 기리는 말삿대를 세우기도 했다. 마고담은 잘못을 뉘우치고 마비정(馬飛亭)이라는 정자를 지어 그곳에서 일생을 마쳤으며, 그때부터 이 마을을 마비정이라 불렀다고 한다. [달성군청 홈페이지 참조]

녹색 공간을 잇는 벽화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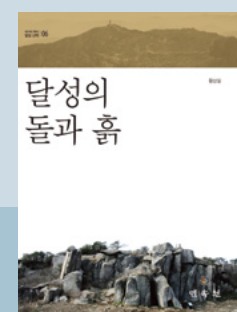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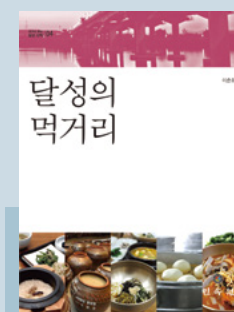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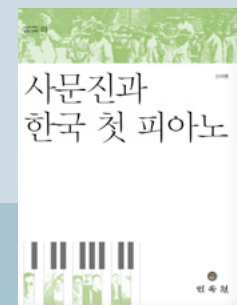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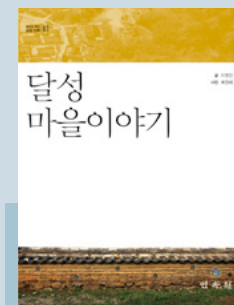
마비정 벽화마을에 있는 '누리길'은 도시민에게 녹색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친환경 산책로다. 누리길은 세 구간으로 나뉜다. 1구간은 삼필봉을 잇는 1.5km 길이다. 대구 달서구에서 삼필봉으로 오른 등산객은 이 구간을 통해 마비정 벽화마을로 바로 갈 수 있다. 2구간은 가창 정대리를 연결하는 옛길을 따라 조성된 5.5km의 구간이며, 말을 타고 시장으로 혹은 피란길에 오른 옛이야기가 서린 곳이다. 3구간은 마비정 벽화마을에서 화원 자연휴양림까지 1.4km의 길로 가벼운 걸음으로 두 명소를 다 녀가도록 돕는다. 비슬산 자락에 둘러싸여 있던 산골 마을은 어느새 달성의 녹지와 명소를 잇는 사통팔달의 중심지가 됐다. 누리길 위로 펼쳐진 푸른 산, 맑은 공기를 따라 고요하고 아늑한 색감이 어우러진 마비정 벽화마을로 지금 발걸음을 옮겨보자.  기획·편집부

· 2017년 달성문화재단 주요 사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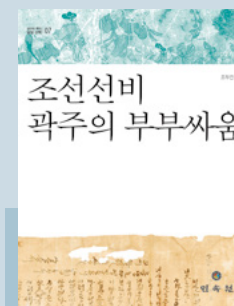
신년음악회	1월 13일
도동서원 활용사업 「선비, 그 깊이와 너비 '도동서원」	3월~10월 중
2017 달성군 사진공모전	3월~10월 중
제21회 비슬산 참꽃문화제	4월 중
달성음악회	5월~10월 중
2017 강정 대구현대미술제	7월~8월 중
아이조아 페스티벌	7월~8월 중
2017 달성 100대 피아노	9월 30일~10월 1일
제13회 달성군립합창단 정기연주회	11월 중
2017 성악중창 페스티벌	12월 중
달성 인문학 편찬	연중
달성 스토리텔링	연중
달성 고문헌 수집사업	연중
달성문화 계간지 '꽃밭에서'	연중

달성 인문학 총서 소개

대구의 뿌리 달성 산책 시리즈



2017년 발간예정 도서



『기부문화와 장학제도』

『달성의 누와 정』

『전통시장과 보부상』

『달성의 나무』

이 외에도 달성 인문학 총서는 80권까지 기획돼 있습니다.